

# 국민의당 초선들 “통합 논의 당장 중단하라”

### 10명 성명 “내분 끝내야” 양당 연구모임 대전서 포럼 安 포항·대구서 통합 세몰이 반대파-통합파 엇갈린 행보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이 지난 30일 “통합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안철수 대표발(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지난 10월 시작된 내용이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기는커녕 분열의 일상화, 분열의 고착화로 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는 절박감에서다. 원내 제 3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고서도 여당과 국민에게 존재감을 보여주거나 민생정책 실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커녕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초선의원들 설명이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날 보수닷컴발인 경북 포항과 대구를 누비며 통합 세몰이에 나섰다. 즉각 그룹인 이언주·최병길 의원은 대전에서 바른정당 의원·당원들과 정책 포럼을 여는 등 미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초선들 “당 분열 마침표 찍자” = 국민의당 초선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통합 추진 중단으로 당 내분을 수습하자”고 촉구했다.

김경진·김광수·김종희·박주현·윤영일·이용주·이용호·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이 성명을 통해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통합을 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초선의원들은 그 이유로 당내 갈등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초선의원들은 이와 함께 ‘막 출범한’ 양당 정책협의체는 통합을 위한 매개



국민의당 호남 초선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정문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숙 의원, 전북도당위원장 김중희 의원, 광주시당위원장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당제 구도의 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정책실현을 위해 당이 바른정당과 사안별로 손을 잡을 수는 있으나, 정책협의체가 통합으로 가는 연결다리라 되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을 추진하려는 안 대표측 진영과 이를 막아서는 호남의원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의식한 듯 초선의원들은 끝으로 “당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을 함께하며 뜻을 모아 발표한 초선의원들은 그러나 “안 대표 측이 내일도 통합 행보를 계속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숨만 내쉬며 뾰족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안철수, 통합추진 ‘마이웨이’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의 정책연구모임이자 양당 간 통합 논의 장구적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대전에서 포럼을 열고 통합을 향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양당의 대전·세종·충남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의 주제는 ‘한국의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책의 비전’이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언주·최병길·김수민·이태규·오세정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박인숙·하태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 포럼의 성격이 말해주듯, 두 정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날 ‘우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양당정치 정상화’와 ‘중도통합의 필요성’ 등을 수차례 강

조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날 보수닷컴발을 훑었다. 포항과 대구를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합에 관한 의견수렴과 함께 바다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안 대표는 포항에서 가진 경북당원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100% 모두 찬성하고 계셨다”면서 “앞으로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호남의원들의 압도적인 통합반대, 초선들의 중단 호소에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한병도 “연내 여야 지도부 靑 초청”

### 국회 예방 이틀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중순 중국 방문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수석은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생겨서 고민 중인데, 빨리 대표들을 초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예방 후 구체적인 회동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방

문) 전후 결정을 못 했다”면서 “(방문) 전에는 여러 일정이 많다. 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울러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논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에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검토해) 아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한 수석은 전날 신임 인사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각 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정당 5·18 특별법 논의 착수

### 조사기간 줄이고 인력 2배로...오늘 국민의당에 제안

바른정당이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당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 의총 결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줄이고 인력 규모는 늘려 최대한 압축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지난 30일 전해졌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크게 구성, 객관성, 집중성이라는 3가지 원칙 아래에서 5·18 특별법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발의된 법안은 조사 기간을 2년+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본

활동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의 편향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연다 공시 출범한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협의체는 발표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은 1일로 예정된 2차 정책연대회의에서 5·18 특별법에 대한 당 입장을 국민의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라운지

## 박주선,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부의장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처지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지난 6월말 기준)간 33억6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어,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

이에 박 부의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돼야 함에도 법적 모순상태가 지속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진전 없는 예산안 협상...시한내 처리 ‘빨간불’

### 정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공회전...내일 오전까지 자동부의 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등이 켜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첫 예산 지각 처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 30일에도 수시로 ‘2+2+2 회의’(예결위 간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와 예결위 ‘소수위’(예산안등조정 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만 이견을 좁혔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소수위는 증액심사를 시작도 못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밤 늦게까지 수차례 긴급 회동을 갖고 점점을 모색했으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야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문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8개 쟁점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추가해 모두 9개 사안을 놓고 맞서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등 4대 쟁점은 대체로 점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결위가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의 첫 지각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12월1일에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일 정오까지 자동부의 시점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미지도 야당이 정부 원안 표결시 부결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내년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여권의 양보가 없을 경우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예산안 연내 처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12월1일과 2일, 7일, 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면서 “야당이 계속 비협조 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년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활동을 제한하오니 일정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시타르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자사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석사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